



차수련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무엇보다 '사람 냄새'가 나는 노조를 만들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게 사람밖에 더 있습니까? 결국 사람보고 이 일 하는 건데 사람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없습니다.

인정이 메말라가는 풍토를 빨리 바꾸어야 합니다.

노조운동은 대중운동이지 않습니다.

겨울비가 내리면 1월 11일 남산 발치에 있는 보건의료노조에서 차수련 위원장을 만났다.

* 만남이 :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편집실장

■ 바른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원자력 병원 집회를 다녀오셨는데, 요즘 근황은 어떠신지요?

선거가 끝난 다음 연말까지 임원선출을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마치고 곧바로 민주노총 농성에 결합하고, 원자력병원 해고자 건으로 노동청장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면담하는 등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리고 새해 들어서는 사무처 인선을 하고, 지금 업무 인수인계 중이구요. 무엇보다 사업 계획을 세우느라 골몰하고 있습니다.

■ 2000년은 산별노조로서의 걸음마 단계를 넘어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때인데요. 신입위원장으로 어떤 사업에 역점을 두실 계획입니까?

크게 다섯 가지에 집중할 것입니다.

첫째, 병원 구조조정과 신경영전략 도입에 대비해야 합니다. 병원장들 입에서 "올해부터 병원은 IMF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측은 의약분업을 빌미로 구조조정이니, 임금인하니 하면서 공세를 취할 것입니다. 국공립대학이나 지방공사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민영화나 민간위탁도 예상됩니다.

그리고 팀제나 연봉제 도입을 통한 신경영전략 공세도 거세질 것 같습니다.

둘째, 제대로 된 산별노조의 모습을 갖춰야 합니다. 조직구조, 조합원과 간부들의 의식, 사업방식과 관행, 사무처 운영 등에서 아직도 기업별노조 잔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집중성과 효율성을 갖춰야 합니다.

셋째, 조직의 민주성과 현장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장과 본조 사이에 엄청난 간격이 있습니다. 관료주의 모습도 보입니다. 현장순회를 정례화하는 등 현장조합원과의 접촉을 강화할 것입니다.

넷째, 조직 확대를 해야 합니다. 공약으로 조합원 배가운동을 내걸었습니다. 영세중소병원의 미조직노동자는 물론 삼성병원 등 조직안된 큰 병원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노총에 속해 있는 세브란스 병원같은 조직 사업장과의 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임기 안에 보건의료노조 전체가 참여하는 파업을 조직할 것입니다. 민주노총 차원의 총파업과 행보를 같이 할 수도 있겠지요.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찬반투표를 거쳐 하루든 이틀이든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산별노조 차원의 파업을 이뤄내고 싶습니다.

■ 3년차인 이제는 보건의료노조가 산별노조로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노동계 한면에서는 관료주의를 들어 산별노조 건설을 주저하기도 하는데, 산별노조의 성과를 말씀해 주시지요.

이제 우리 노조운동은 산별노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세가 된 것이지요. 산별노조의 전제는 지도부의 지도력이라고 봅니다. 지도력이 바로 서야 합니다. 공동활동과 투쟁을 거치면서 조합원들 사이에 기업별 의식을 넘어 '하나의 노조'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작년 투쟁에서는 자기 지부만 보면 파업을 못하는데 보건의료노조 전체가 하기 때문에 힘을 얻어 파업에 돌입하는 사업장도 있었지요.

지금 조합비의 50% 이상이 본부로 들어옵니다. 이것은 우리 노동운동에서 획기적인 일이지요. 또한 산별 전체 차원에서 조합비 가운데 400원씩을 해고자기금으로 따로 모으고 있습니다. 이것도 산별 차원에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대구동산병원이나 대전성모병원 사례에서 보듯이 산별 차원에서 집중투쟁으로 사용자에게 압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산별

노조 전환 이후 사용자들이 노조를 쉽게 대하지 못합니다.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지요.

■ 작년 말 있었던 선거는 산별 차원에서 최초로 이뤄진 직선제 선거였습니다. 사무금용노련의 경우 선거 문제로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다시 돌아가려는 움직임도 있는데요. 직선제인 이번 선거의 의의와 성과를 말씀해 주시죠.

직선제가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일반 조합원들은 보건의료노조가 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직선제 선거는 현장 조합원들에게 산별노조를 체험하게 만드는 기회입니다. 위원장을 직접 자기 손으로 뽑음으로써 산별노조를 피부로 느끼고 고민하게 되지요. 우리는 직선제를 '교육의 장'으로 만들려 애썼습니다. 대중의 의식을 높이고, 노조사업을 홍보하고, 조직하는 마당으로 만들려 했지요. 경선으로 치뤄진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조합원의 80% 이상이 참가하여 높은 투표율을 보였고, 이것이 조직의 힘이자 강한 지도력의 토대가 되리라 봅니다.

■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1기 집행부를 거치면서 산별노조 의식이 점차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기업별노조 의식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조합원들이 지부장의 판단이나 성향에 의존해서 선거에 임하는 경향이 큼니다.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리고 선거과정에서 비방이나 흑색선전이 현장에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조직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고 개인적인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 개선할 문제들도 있다고 보이는데요?

노조가 채용한 간부의 선거참여 혹은 개입 문제에 대한 원칙이 필요합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채용된 간부는 별도 노조에 가입하는 게 일반적이고, 채용된 노조의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게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조합비를 미납하거나 실제 인원보다 적게 낸 지부 조합원들에 대한 선거권 제한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조합원수는 5백명인데 의무금 납부 조합원 수가 3백명일 경우 3백명분의 투표권을 주었거든요. 개선방향을 고민 중입니다.

■ 98년 이후 민주노총 위원장을 조합원이 직선하자는 주장이 많았는데요?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조합원 직선에는 반대합니다. 민주노총의 가입주체는 산별노조 혹은 연맹이지 개별 조합원이 아닙니다. 대신 산별노조 혹은 연맹의 가입 주체는 조합원이고, 조합원은 산별노조를 통해 민주노총에 참여합니다. 따라서 산별 위원장을 가입 주체인 조합원이 선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민주노총 위원장을 일선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것은 옳바르지 못합니다. 중앙의 지도력이 대중의 눈치만 살피는 '대중추수주의'로 흐르게 될 가능성이 큼니다.

■ 보건의료노조는 국민건강과 직결된 조직인데요. 노조 차원의 사회정책으로는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 노조는 의보통합과 의약분업을 지지하고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보통합이야 당연하고, 의약분업은 물론 병원 자체로 보자면 약품판매 수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병원종사자들의 이익과 충돌하는 측면이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을 설득하고, 사측에도 압력을 가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신경영전략과 관련된 연봉제나 팀제 문제도 사실 국민건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신경영전략의 목표는 이윤극대화 와 효율성인데요. 이런 방향에서 생명과 건강문제를 다루면 큰일납니다. 수익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검사와 처방이 많아지고, 약품이 남용되고 결국 국민 부담과 손해가 가중되지요. 병원의 연봉제나 팀제 문



한번 결정한 사안은 반드시 집행하고 책임지는 풍토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산별단위든 노총단위든 회의는 방색도둑 하고 실천은 안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결정은 신중하게 하되 한번 결정된 것은 반드시 집행해야 합니다.

제는 사회제도적 차원에서 막아야 합니다. 고귀한 생명을 돈이나 효율로 따질 수는 없잖아요.

■ 4월 총선에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과 제휴할건데요. 보건의료노조는 어떻게 대응하실건가요?

선거에서 우리 노조의 영향력은 큼니다. 조합원들이 매일 국민들을 만나니까요. 국민의 정치의식을 높이고, 진보진영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많습니다. 홍보작업을 통한 낙선운동 참여도 가능하고, 정부정책이나 사회구조에 대한 문제점도 알릴 수 있습니다.

조직의 총선방침은 아직 없습니다. 민주노동당이 1월 30일 창당을 앞두고 있는데, 오는 2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조직 결의를 거쳐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 최근 지하철노조 사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노조지도부와 사측의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사표시를 대의원들이 막고 나서는 결과가 되었는데요.

노동조합은 투쟁조직입니다. 투쟁없는 교섭은 문제가 있습니다. 배일도 위원장이 '무쟁의선언'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노동운동의 원칙과 대의를 망각한 처사입니다.

■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운동이 가진 한쪽 편향에 대한 반동으로 또다른 편향이 나타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하철노조 지도부 탓만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물론 이 문제가 발생한 데는 우리 잘못도 있습니다. 중앙으로 갈수록 현장은 결여된 반면 현장의 목소리를 빙자한 자기 주장이 압도적입니다. 운동의 다양성도 없습니다. 칼러TV가 아닌 흑백TV입니다. '모' 아니면 '도'지요. 그 중간은 없습니다. 87년과 별반 달라진 게 없습니다. 투쟁, 집회, 동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과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투쟁, 집회, 동원만 고집합니다. '20 대 80 사회' 라고 하는데 사실 투쟁에 참

여하지 못하는 80을 설득하고 참여시키기 위한 전술과 프로그램이 없습니
 다. 98년과 99년 민주노총 투쟁에서 그대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 마지막으로 임기 중에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말씀해주시죠?

무엇보다 '사람 냄새'가 나는 노조를 만들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게 사람밖에 더 있습니까? 결국 사람보고 이 일 하는 건데 사람에 대한 애
 정과 신뢰가 없습니다. 인정이 메말라가는 풍토를 빨리 바꾸어야 합니다.
 노조운동은 대중운동이지 않습니까.

결국 연관된 문제일텐데요, 일선 노조간부는 물론, 특히 사무처 간부들
 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간부들의 충전과 재훈련을 위한 시간이나 조건을 고민 중입니다.

끝으로 한번 결정한 사안은 반드시 집행하고 책임지는 풍토를 만들어 나
 가겠습니다. 산별단위든 노총단위든 회의는 밤새도록 하고 실천은 안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결정은 신중하게 하되 한번 결정된 것은 반드시 집행해
 야 합니다. ❖

차수련 위원장 약력

- 1984 한양대병원입사
- 1987 한양대병원노조 결성, 초대위원장
 병원노동조합협의회 결성, 초대사무국장
 서울지역노동조합협의회 결성 주도
- 1990 전노협 결성 관련 1년 4개월 수배
- 1994 한양대병원노조 위원장
- 1998 한양대병원 복직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 1999 보건의료노조 제2대 위원장

* 두 번의 투옥과 8년의 해고자 생활을 겪었으며, 두 아이의 어머니다.